

전주 비빔밥과 사찰음식이 만나면?

완주 송광사 2014 비빔밥축제서 사찰음식 '인기'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과 사찰음식이 만난다면? 2014전주비빔밥축제에서 완주 송광사가 선보인 사찰음식을 맛보기 위해 4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몰려 화제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0월 23~26일 열린 전주 비빔밥축제에서 사찰에서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힐링'을 주제로 한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다양한 채식 식단의 맛스러운 모습에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삼삼오오 발길을 멈추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특히 음식 조리와 함께 열린 '발우공양'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광수 도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전주시의회의장 및 박성일완주군수, 완주군의회 의장 그리고 서거석전북대학교 총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불교신행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이 즉석에서

신청을 통하여 함께 공양을 올렸다. 대중들과 점심식사를 발우공양으로 진행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발우공양에 담겨 있는 수행정신과 함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은 환경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배 식재료 사용, '힐링' 음식

발우공양, 시민 4000명 참여

연음식 '쿠킹콘서트' 높은 호응

한국여행 중 우연히 행사에 참여한 사요코(24세, 구마모토 현)씨는 "작은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불교의 발우공양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비뚤었다. 일본에서도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우공양'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광수 도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발우공양에 이어 전주 경기전 특설무대에서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과 셰프들이 함께하는 '쿠킹콘서트'도 열렸다. 쿠킹콘서트는 송광사 연밭에서 직접 채취한 연(蓮)을 가지고 음식을 즉석에서 요리하며 대중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진 스님은 "몸에 해로운 음식이 아니라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몸에 이로운 음식은 몸을 깨끗이 할 뿐 아니라 평소 식생활 습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진 스님은 "자연음식이자 건강식인 사찰음식을 권한다"며 "음식은 맛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정

신도 함께 담아야 한다. 사찰음식에는 불교의 평등사상, 나눔정신, 공동체 정신도 함께 담겨있다"고 말했다.

박주희(48세, 부산 금정구)씨는 "평소에 더 맛있고 더 많은 음식을 먹으려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게 됐다"며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함께 깨끗이 하는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 송광사는 비빔밥 축제를 시작으로 '3소식 캠페인'을 전개한다. '3소식'이란 즐거울 소(笑), 작을 소(小), 푸성귀 소(蔬)의 3가지 '소'를 실천하는 것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시 무형문화재 23호 광주영산재 시연회

최고 광주시로부터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의 시연이 개최됐다. 시)광주전통불교영산재(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는 10월 18일 서구 법륜사에서 '전통불교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보인 영산작법은 7월 31일 광주시의 무형문화재 23호로 등재된 광주영산재로 범음어수자 해령, 바라이수자 호산, 작법어수자 월인 스님 등 총 30여명의 스님들이 불교의식의 장엄함을 선보였다. 월인 스님은 "앞으로도 인재봉사의 원



력으로 후학들을 교육·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담양 용화사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10월 18일 경내에서 "한중불교문화교류수륙대제 및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세계선센터 총재 도성 스님,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스님을 비롯한 신도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대회장 대광 스님은 대회를 통해 "우

리불교는 이제 대중불교 정신으로 대중화, 생활화,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진실한 불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국,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스님들이 참여해 수륙제의 의식을 각 나라별로 진행했으며, 행사후에는 중국소림무술시범팀, 한국태극권단의 시범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발효차 '청태전'으로 만끽하는 사찰 품미

장흥 보림사, 청태전차문화축제 및 산사음악회



사찰의 풍광을 즐기고, 사찰 고유의 전통차를 음미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 화제다. 전남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는 10월 18일 경내에서 '2014청태전차문화축제'와 '템플스테이, 명상치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청태전차문화축제에서는 법요식에 이어 청태전 맛있게 우리기, 멋있게 꾸미기, 제다체험, 보조선사상성탑비 헌다례, 청태전 홍보 및 판매 등이 진행됐다.

'청태전 맛있게 우리기'는 각 참가자들에게 청태전 2개씩을 지급하고, 차를 우려내는 프로그램이다. '청태전 멋있게 꾸미기'는 청태전을 이용해 전통 찻자리를 가장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거나, 새롭게 창조한 찻자리를 만드는 행사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주어졌다.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장흥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고유발효차이다.

청태전차문화축제에 이어 오후에는 해민 스님(뉴욕 불광선원 부주지)의 명상치유 강연과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해민 스님은 이날 강연을 통해 "행복해 지려면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사귀려면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부관계, 친구관계, 자식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어 6시부터는 피아노 연주자 임동창 씨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행사에 앞서 주지 일선 스님은 "오늘 이 행사는 힐링의 명사들을 모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훌훌 내려놓고 가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체대비 보살행, 한국불교 살피는 자리로"

김제 금산사 1415주년 개산대제 봉행... 보살계 수계법회도 이어져



백제 법왕이 국태민안과 선정을 펼치고자 발원하며 자복사찰로 창건한 전북의 대표적인 명찰 금산사(주지 성우)가 개산 1415주년을 맞았다.

10월 18일 금산사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열린 개산 1415주년 개산대제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불국사 성타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최규성 국회의원, 유성업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이건설 김제시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해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개산대제는 조사전과 부도전에서 의 차례제에 이어 육법공양, 헌공, 기념법회, 보살계 수계식, 만등불사 점안의 순

로 진행됐다. 성우 스님은 대회를 통해 "높은 가을 하늘 만민이나 후세에 길이 빛날 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며, 그 해명을 계승하기 위해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금산사 개산 1415주년을 맞아 역대조사스님들의 동체대비 보살행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했다.

이날 오후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증명법사로, 월주 스님을 계사로 대적광전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보살계 수계법회에 이어서는 만등불사 점등식이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개암사, 산신대제 및 우금 문화예술제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북불교 중흥과 전라북도, 부안군의 발전을 기원하는 산신대제와 문화예술제가 10월 19일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에서 열렸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과 대학원 스님들과 김춘진 국회의원, 김종규 부안군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개암사의 산신대제는 명종,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열리는 우금문화예술제에서는 노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한 심진 스님, 퓨전국악단 '아미' 베트남과 필리핀의 공

연단, 가수 조항조 등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색다른 맛을 선사했다. 이날 우금 문화예술제에 앞서 재안 스님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다문화 가정 자녀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안 스님은 "산신대제를 봉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융성과 전라북도, 부안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며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 서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 불교 성보기획전

군산지역의 성보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기획전 '천년의 만남'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10월 22일 개막됐다. 군산 은적사, 동국사, 흥천사, 불주사, 상주사 등이 소장하고 성보문화재와 군사지역의 사찰에서 출토된 성보문화재 80여점과 1편의 영상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다.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전시될 이번 기획 특별전은 군산지역에서 발달한 불교 문화를 재조명한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각 사찰별로 소장하고 있는 불상, 경전, 사리함, 복장유물 등

다양한 성보문화재와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자료와 체험실이 준비되어 있다.

불주사 배수로 공사 중 발굴된 통일신라시대양식의 금동여래입상, 은적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 동국사 삼존불 사리장엄구, 복장유물 등 군산을 대표하는 사찰들의 성보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 군산 사업연합회장 도연스님(상주사), 흥천사 회주 지환스님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제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